

국어 음운현상에서의 지배관계

오 정 란
(광운대학교)

1. 서언
2. 강도 조정 현상
 - 2.1. 올림도 동화의 한계
 - 2.2. 음절구조와 자음 강도 체계
 - 2.3. 강도 조정현상 - 비음화와 경음화
3. 위치 조정 현상 - 연구개음화와 순음화
4. 결론 - 강도 · 위치 조정과 지배관계

1. 서언

국어에서 빈번한 자음들의 음운현상에 비음동화와 경음화가 있다. 비음동화는 장애음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화되는 현상으로 조음방법에 의한 동화로 간주되어 왔다. 반면 두 장애음의 연속시 후행 장애음의 규칙적인 경음화는 비음화와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음절 구조에 따른 범어적인 강도체계가 음운 현상의 주요 동인이 된다는 인식에서 이들 음운과정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자음들의 강도 및 조음 위치들의 우월성 여부가 국어 자음현상의 두 지렛대가 됨을 밝히고, 나아가 이들 두 지렛대들은 음절 두음이 음절 말음을 지배한다는 공통적인 지배관계에서 기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천착하고자 한다. 그 결과, 지금까지 별개의 음운현상으로 간주되어 온 경음화·비음화·위치동화 현상들이 하나의 역동적 범주 내에서 도출된 것임을 밝히게 될 것이다.

2. 강도 조정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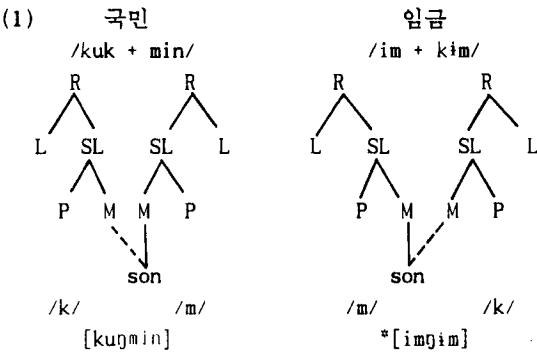
2.1. 올림도 동화의 한계

소위 비음동화는 공명성[sonorant]자질의 확산으로 이해된다. [공명성]은 조음방법 마디의 지배를 받으며¹⁾, 이것은 인접 장애음의 무표적인 조음방법 마디로 확산되어 비음동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²⁾. 자질층위 이론(Feature Hierarchy Theory 혹은

1) 자질 층위도에서 [공명성]의 위치는 학자에 따라 견해차를 보이나, 조음 방법 마디의 지배를 받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Mohanan(1983)은 뿌리마디 아래의 발성도, 공명도, 조음위치의 세 가지 기능적인 집단 중에서 [공명성]자질은 공명도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Clements(1985)는 [공명성]이 조음방법마디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고, 김기호(1990)에서는 [공명성]이 뿌리마디의 직접지배를 받는다고 본 김기호(1987)의 견해를 수정하여 조음방법마디의 지배로 간주하고 있다.

2) 이것을 단일마디 확산(single node spreading)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자질층위 이론으로 하여금 음운의 동화현상을 보다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Feature Geometry)은 이러한 비음화 과정을 잘 보여 줄 수 있으나, 반면 비음화되지 않는 예들도 비음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자질층위 이론에 의하면 /im + kɪm/은 [공명성]의 무표적 조음방법마디로의 확산에 의해 *[imgɪm]으로 동화되어야 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국어에서 이때는 [공명성]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으며 [imgɪm]으로 발음될 뿐이다. 그 밖에도 ‘갑각·단골·군불’등 여러 예외적인 예들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곧 음소 결합의 위치를 무시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국어에서 [공명성]의 확산은 ‘오른쪽->왼쪽’이라는 방향성을 지키고 있음을 (1)의 도출이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차균(1981)이 제안한 음림도 동화는 국어의 본질 파악에 보다 근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3) 김차균의 이해는 다음 도표에 의거한다. (김차균 1990:196)

국어의 음성도표

| 강도 | | I | II | III | IV | V | | |
|-----|----|----|------|---------------------|-------------------------|----------------------|----------------------|-----|
| 울림도 | 자리 | 성분 | 잇몸 | 센입천장 | 입술 | 여린입천장 | | |
| ↑ | 강 | 1 | (ʔ) | (d)t t ^h | (j) c c ^h | (b) p p ^h | (g) k k ^h | |
| | | 2 | h | s s ^h | (ʃ)(ʃ)(ʃ ^h) | | | |
| | | 3 | d | j | | b | g | |
| | | 4 | (fi) | (z) | (ʒ) | (β) | (γ) | |
| | | 5 | n | (ɲ) | | m | | |
| | | 6 | (l) | (ʎ) | | | | |
| | | 7 | r | | | | | |
| ↓ | 약 | 8 | φ | (φ) | (y) | (ɥ) | (w) | (φ) |
| | | | | | | | | |

(2) 김차균의 올림도 동화

음절경계 바로 앞 소리의 올림도 \geq 음절경계 바로 뒷소리의 올림도

국어에서 (2)를 어기는 발음은 음절도를 조절하여 (2)를 만족시키고자 하는데, 그 결과 국민/ $kuk+min/->[kuɡmin]$, 악마/ $ak+ma/->[aɡma]$ 의 발음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2)에 부합되기 위한 올림도의 조절방법에는 (3)올림도 높이기 규칙 (4)올림도 낮추기 규칙이 있다고 한다.

(3) 올림도 높이기 규칙

$XVC^{\uparrow} \cdot CVY$ (여기서 C^{\uparrow} 은 단침소리, X, Y는 0개 이상의 임의의 소리의 연결)와 같은 구조에서, C^{\uparrow} 의 올림도가 C의 올림도보다 작을 때, C^{\uparrow} 의 올림도를 C의 올림도에 완전히 동화시킨다. 그러나, 구조적인 또는 생리적인 제약으로 완전히 동화가 불가능할 때는 C^{\uparrow} 의 올림도를 국어에 존재하면서 C의 올림도에 가장 가까운 올림도까지 끌어 올린다.

(4) 올림도 낮추기 규칙

$XVC^{\uparrow} \cdot CVY$ 의 구조에서 C^{\uparrow} 의 올림도가 C의 올림도보다 낮지만 구조적인 제약이나 생리적인 제약으로 C^{\uparrow} 의 올림도를 C의 올림도에 동화시킬 수 없을 때는 C의 올림도를 낮추어 C^{\uparrow} 의 올림도에 동화시킨다.

그러나 올림도를 기준으로한 이러한 설명으로는 첫째, 김차균(1981)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학사·법사’등 ‘장애음+마찰음’의 연결시 일어나는 후행음의 경음화를 설명할 수 없다⁴⁾. 그에 의하면 다음의 표면형이 나타나야 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 | (ϕ) | y | ɥ | w | (ϕ) |
|--------|-----------|----------|----------|-----------|-----|
| 9 | ɪ | i | ü | u | (ɪ) |
| 10 | e | e | ö | o | (e) |
| 약 11 | a | ɛ | | | (a) |
| 올림도/자리 | [+후설 -원순] | [-원 -후*] | [+원* +후] | ([+후 -후]) | |
| 강도 | 약 | 중 | 강 | 중 | (약) |

4) 김차균(1981)에서 들고 있는 예외 중에서 ‘달노리’[tallori] 등 설측음화 현상은 국어 ‘ㄹ’음의 겹자음성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비유음화 현상인 ‘감로->감노, 종로->종노, 극락->극낙, 몇리->면니’ 등은 국어에서 음절 초에 ‘ㄹ’이 올 수 없다는 두음제약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표기상으로는 ‘ㄹ’이지만 발음은 [n]으로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정란(1993) 참조 바람.

| | |
|-------------------------|--------------------------------------|
| (5) 학사 | 법사 |
| /hak+sa/ | /pəp+sa/ 기저형 |
| 1' 2' | 1' 2' |
| hak ¹ + sa | pəp ¹ + sa <- 닫힘소리 규칙 |
| hak ¹ + s'a | pəp ¹ + s'a <- 경음동화 |
| hak ¹ + t'a | pəp ¹ + t'a <- 올림도 낮추기 규칙 |
| *[hak ¹ t'a] | *[pəp ¹ t'a] 표면형 |
| 1' 1' | 1' 1' |

둘째, 올림도의 기준으로는 '장애음+장애음'의 연결시 나타나는 예외없이 규칙적인 경음화 현상은 별개의 현상으로 남아 있게 된다. 왜냐하면 'ㄱ·ㄷ·ㅂ·ㅅ'와 'ㄱ·ㄷ·ㅂ·ㅅ·ㅈ'의 올림도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음화 못지 않게 자연스러운 이 경음화 규칙도 음절구조를 고려한다면 동일한 범주의 음운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⁵⁾.

또한 올림도 동화에 의하면 마치 선행하는 음절말음이 후행하는 음절두음보다 강한 위치인 듯이 기술되는 우를 범함도, 기술상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극복은 음절구조에 따른 범어적인 강도차이 및 자음의 강도 (consonant strengthening)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2.2. 음절구조와 자음강도 체계

자음에서 공명도와 강도의 세기는 역비례관계에 있다. 공명도가 클수록 자음의 강도는 약하며, 공명도가 적을 수록 자음의 강도는 강하다. 이는 범어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Jespersen 1904, Grammont 1950, Hooper 1976, Kiparsky 1979, Vennemann 1988 등). 이는 특히 음절을 음운론에서의 주요한 단위로 인식시킨 자연생성음운론자(NGP)인 Hooper(1976)에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C_iVC_f 음절의 내적구조에서 음절두음 C_i의 자음강도는 음절말음 C_f의 자음강도보다 강하다. (C_i=consonant initial, C_f=consonant final)

(6) 음절의 내부구조(Hooper 1976:199)

| MARGIN | NUCLEUS | MARGIN |
|---------------------------|-----------------|----------------------------------|
| obstruents nasals liquids | glides vowels | glides liquids nasals obstruents |
| Least vowel-like | Most vowel-like | Less vowel-like |
| STRONG | WEAK | WEAK |

또한 Foley(1970), Otero(1971) 등의 인도유럽어의 자음추이에 대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자음의 강도체계를 발견했는데 이는 범어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7) 자음의 강도체계

| | | | | |
|--------|---|---|----|----------|
| ð | d | t | tt | |
| —————> | | | | |
| 1 | 2 | 3 | 4 | strength |

5) 여기서 다루는 경음화는 '장애음+장애음'의 규칙적인 음운현상을 지칭한다. '연성장애음+장애음' 연결시 나타나는 불규칙적인 장애음 현상은 형태론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오정란(1987·1988) 참조 바람.

(7)은 곧 무성장애음은 유성장애음보다 강하고, 또한 겹자음은 단순자음보다 강하고, 폐쇄음은 마찰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외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인정되는 범어적인 자음강도의 전체적인 체계는 다음과 같다.

(8)범어적인 자음의 강도체계(Hooper 1976:206)

| | | | | | | |
|--------|---------|--------|------------|-----------|------------|-----------|
| | | | voiced | voiceless | continuant | voiceless |
| glides | liquids | nasals | continuant | voiced | stop | stop |
| 1 | 2 | 3 | 4 | 5 | 6 | |

또한 Vennemann & Ladefoged (1973)은 이것을 생성음운론의 양분법 변별자질로 나타내고 있다. (9)에서 '<->'표는 '.....와 동등하다'는 뜻인데, 이 규칙은 자질잉여규칙(feature redundancy rule)이다.

(9)자질강도의 잉여규칙

$$\begin{aligned}
 [3 \text{ strength}] <-> \left\{ \begin{array}{l} + \text{ stop} \\ - \text{ fricative} \end{array} \right\} \\
 [2 \text{ strength}] <-> \left\{ \begin{array}{l} - \text{ stop} \\ + \text{ fricative} \end{array} \right\} \\
 [1 \text{ strength}] <-> \left\{ \begin{array}{l} - \text{ stop} \\ - \text{ fricative} \end{array} \right\}
 \end{aligned}$$

또한 Hooper(1976:206-207)에는 Vennemann교수의 사적인 제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0) 범어적인 자음의 강도관계

$$\begin{aligned}
 \text{strength} \left(\begin{pmatrix} A \\ -\text{voice} \end{pmatrix} \right) &> \text{strength} \left(\begin{pmatrix} A \\ +\text{voice} \end{pmatrix} \right) \\
 \text{strength} \left(\begin{pmatrix} A \\ -\text{sonorant} \end{pmatrix} \right) &> \text{strength} \left(\begin{pmatrix} A \\ +\text{sonorant} \end{pmatrix} \right) \\
 \text{strength} \left(\begin{pmatrix} A \\ -\text{continuant} \end{pmatrix} \right) &> \text{strength} \left(\begin{pmatrix} A \\ +\text{continuant} \end{pmatrix} \right) \\
 \text{strength} \left(\begin{pmatrix} A \\ +\text{tense} \end{pmatrix} \right) &> \text{strength} \left(\begin{pmatrix} A \\ -\text{tense} \end{pmatrix} \right)
 \end{aligned}$$

또 만약 A가 [+sonorant]인 경우는 다음의 강도체계를 가진다.

$$\text{strength} \left(\begin{pmatrix} A \\ +\text{nasal} \end{pmatrix} \right) > \text{strength} \left(\begin{pmatrix} A \\ -\text{nasal} \end{pmatrix} \right)$$

(10)의 강도관계를 고려하여 (8)을 수정하면 (11)과 같다. 본고에서 자음의 강도는 (11)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11) 자음의 강도체계

| glides | liquids | nasals | voiced | voiceless | continuant | voiceless | tensed |
|--------|---------|--------|------------|-----------|------------|-----------|--------|
| | | | continuant | voiced | stop | stop | |
| 1 | 2 | 3 | 4 | 5 | 6 | 7 | |

이러한 자음강도체계에서는 국어의 '평음:경음'이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음의 강도가 보다 강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올림도 동화에서 예외 혹은 별개의 현상으로 간주되어 온 '장애음+마찰음', '장애음+장애음' 연결시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은 비음화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범주내에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2.3. 강도 조정 현상 - 비음화와 경음화

국민/kuk \$ min/에서 'k'와 'm' 음소의 관계는 음절말음과 음절두음의 관계이다. 이때 범어적인 (6)의 경향에 따라 음절두음은 선행하는 음절말음보다 자음강도에서 강하거나 최소한 같아지려고 할 것이다. 이것을 '음절두음의 강도강세'라 하여 (12)와 같이 나타내어 보자. 여기서 C는 자음 (consonant), i는 음절두음(syllable initial), f는 음절말음(syllable final), s는 자음강도(consonant strength)이다.

$$(12) \text{음절두음의 강도강세} : C_f(s) \leq C_i(s)$$

(C)VCf\$CiV(C)의 구조에서 음절두음 Ci는 음절말음 Cf보다 자음강도에서 같거나 강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12)의 제약을 어기는 결합형이 나타나면 (12)에 맞게 조정하려는 음운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강세조정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강도 올리기 과정'과 '강도 낮추기 과정'이 그것이다. 이때 어느 과정이 선택되느냐 하는 것은 범어적인 음절구조강세에 의존할 것이다. 즉, '강도 올리기 과정'은 음절초 자음에서 일어날 것이며, '강도 낮추기 과정'은 음절말 자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국어에서는 '강도 올리기 과정'은 '장애음+마찰음'과 '장애음+장애음'의 경우에 선호되며, '강도 낮추기 과정'은 '장애음+비음'의 경우에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두 과정 중에서 강도 올리기 과정이 보다 일반적인 과정으로 간주된다. 다만 '장애음+비음'의 경우에만 '강도 낮추기 과정'이 선택되는 것은 음절두음인 비음의 강도 강화가 어렵기 때문인 듯 하다.

(13) 강도 올리기 규칙

만약 (12) $C_f(s) \leq C_i(s)$ 에 어긋나는 결합형이 나타나면, 후행하는 음절두음의 강도를 높여 (12)에 맞게 조정하라.

(14) 강도 낮추기 규칙

만약 (12) $C_f(s) \leq C_i(s)$ 에 어긋나는 결합형이면서 (13)강도 올리기 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행하는 음절말음의 강도를 낮추어 (12)에 맞게 조정하라. 이때 강도 낮추기는 [공명성]의 첨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에 (12)(13)(14)의 규칙으로 경음화와 비음화현상의 과정을 나타내어 본다. 이때

자음의 강도는 (11)에 의거한다.

(15)경음화

ㄱ) '마찰음+장애음'의 경우 (12에 어긋남)

법사 /pəp \$ sa/ → [pəp s'a]
6 5 (13) 6 7

학사 /hak \$ sa / → [hak s'a]
6 5 (13) 6 7

ㄴ) '장애음+장애음'의 경우 (강화육구가 있게 됨⁶⁾)

박다 /pak \$ ta/ → [pak t'a]
6 6 (13) 6 7

업고 /əp \$ ko/ → [əp k'o]
6 6 (13) 6 7

(16)비음화 : '장애음+비음'의 경우 (12에 어긋남)

국민 /kuk \$ min/ → [kug min]
6 3 (14) 3 3

밥물 /pəp \$ mul/ → [pam mul]
6 3 (14) 3 3

3. 위치조정 현상 - 연구개음화와 순음화

김차균(1990)에서는 조음위치에 따른 상대적인 강도를 제시하고 이를 '강도동화'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자음의 강도에 의한 조정현상을 '강도'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김차균의 개념과는 상반된 것이다. 그의 '강도동화'는 본고에서는 '위치조정'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다음은 김차균(1990:216)에서 제시한 예들이다(여기서 조음 위치의 강도값은 각주 3)도표를 참조하라). (18)은 (17)을 위한 김차균의 규칙이다.

| (17) 기저 또는 중간 표상 | 표면 표상 | 일어난 현상 |
|--|--------------------------------------|----------------|
| ㄱ. 꽃밭 [kot ⁷ Pat] | [kop ⁷ Pat ⁷] | II·IV→IV·IV |
| II IV | IV IV | |
| ㄴ. 단골 [dan ⁷ gol] | [daŋgol] | II·V→V·V |
| II V | V V | |
| ㄷ. 옆구리 [yəp ⁷ Kuri] | [yək ⁷ Kuri] | IV·V→V·V |
| IV V | V V | |
| ㄹ. 달력 [dal ⁷ hək ⁷] | [da ⁷ hək ⁷] | II·III→III·III |
| II III | III III | |

6) '장애음+장애음'의 경우 같은 강도의 결합형으로 (12)의 조건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음절구조에 따른 강도차이의 강화육구에 의해 후행 음절 두음의 강도 올리기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의 경음화는 선행하는 음절말음의 내파화에 의해 경음화된다는 사실은 인식되었지만, 음절구조에 의한 파악은 간과되어 왔었다. 그런 점에서 음절구조와 자음강도에 의한 경음화 현상의 설명은 경음화의 근본 동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상의 우위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 | | |
|--|--------------------------------------|-----------------|
| 못질[mot ⁷ Cil] | [moc ⁷ Cil] | II·III->III·III |
| II III | III III | |
| 간장[gan ⁷ jaŋ ⁷] | [gaŋ ⁷ jaŋ ⁷] | II·III->III·III |
| II III | III III | |
| ㅁ. 잇고 /øiŋgo/(->øi ⁷ ko) | [øik ⁷ ko] | I·V->V·V |
| I V | V V | |
| 잇네 /øiŋne/(->i ⁷ ne->øit ⁷ ne) | [øin ne] | I·II->II·II |
| I II | II II | |

- (18) 강도 높이기 : ㄷ의 강도를 높여서 ㄷ의 강도에 완전 동화시켜라.
 (단, C⁷=ㄷ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은 임의적이다. C⁷=ㄷ일 때는
 ㄷ을 ㄷ로 바꾸거나 강도동화를 필수적으로 적용하거나 둘 가운데 한
 쪽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17)의 예에서 몇가지 수정할 점을 발견하게 된다. ㄱ~ㄴ의 예들은
 조음위치 동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ㄹ~ㅁ 예들에 관해서는 재고
 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김차균에서 제시한 조음위치에 따른 강도체계를 5단계까지 나눈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국어의 음운현상의 설명을 위해서는 연구개음(velar)과 순음
 (labial)과 치조음(alveoar)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는 김차균
 (1981:67-68)에도 암시되어 있는 바이다.

“조음위치 동화에서도 강도가 낮은 자음이 강도가 높은 자음에 동화되지만 그 역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동화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또 한편으론 의
 사소통 기능의 위치인 점강의 위치에 있는 소리는 점약의 위치에 있는 소리에 동화되
 지 않는다는 사실도 역시 지켜지고 있다.

조음위치 동화에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군불/kunpur/의 위치동화인 발음
 [kumbul]은 감각/kamkak/의 위치동화된 발음 [kaŋ ga⁷ k]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발음
 으로 들리고 걸보기/kəŋpoki/의 위치동화된 발음 [kaŋ p⁷ogi]는 옆구리/yəŋkuri/의
 위치동화된 발음[yəŋ k⁷uri]보다 더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들린다. 이것은 표(39)를 보
 면, [g]:[m]:[n]=16:12:2로 강도의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율을 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개음:순음:치조음=8:6:1(조음위치 강도의 비율)

이 비율은 연구개음은 치조음보다 8배, 순음은 치조음보다 6배로 강하다는 것이 아니
 라 연구개음과 순음은 강조음점, 치조음은 약조음점임을 나타내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화에 있어서 약한 강도를 가진 것일 수록 동화가 잘되고 강한 것일 수록 동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방금 위에서 말한 [kum⁷ bul]이 [kaŋ ga⁷ k]보다
 [kaŋ p⁷ogi]가 [yəŋ k⁷uri]보다 더 나은 발음인 이유를 알 것이다. 즉 조음점의 강도가
 낮은 [n⁷]이 [m⁷]이나 [ŋ⁷]으로 변하는 것이 조음점의 강도가 높은 [m⁷]이 [ŋ⁷]으로
 변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마찬가지로 [t⁷]이 [p⁷]이나 [k⁷]으로 변하는 것이 [p⁷]
 이 [k⁷]으로 변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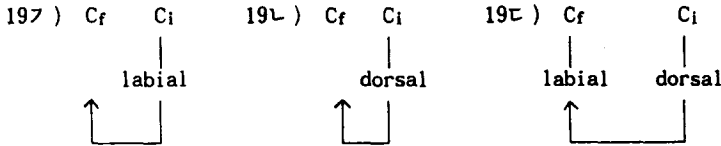
또 반대로 /kukmur/(국물)이 [*kum⁷ mul]로 발음되는 것은 /kuknan/이 [*kun⁷ nan⁷]으
 로 발음되는 것보다는 덜 어색하다. 이것은 연구개음이 순음으로 변하여 자연스러움을
 어기는 정도는 연구개음이 치조음으로 변하여 자연스러움을 어기는 정도보다는 어기는
 정도가 낮은 데에 원인이 있다.”

위치조정과정에 필요한 조음위치 표시는 연구개음(velar)의 [dorsal]자질과 순음의
 [labial]자질, 경구개음의 [](무표)로 가능하다. 국어의 위치동화는 이들 세 자질 사
 이의 우선성을 부여하는 (19)의 규칙으로 충분한데, 자질확산의 방향은 ‘오른쪽->왼쪽’

이 된다. 이 방향성 역시 음절구조의 범어적인 강도체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C는 자음(consonant), i는 음절두음(syllable initial), f는 음절말음(syllable final), p는 강세위치(strength place)이다⁷⁾. 확산 결과 동일 조음위치에서의 발음으로 노력경계를 획득하게 된다.

(19) 음절두음의 위치강세

(C)VC_f\$C_iV(C)의 구조에서 음절두음 C_i가 음절말음 C_f보다 위치강세에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은 음절말음에 확산되어 동일한 조음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음절두음->음절말음'으로의 확산은 일어나지만 그 역의 방향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 박눈/pak \$ nun/ -> *[pakgun], 박달/pak \$ tal/ -> *[pakgal] 등)
 dor. alv. dor. alv.

다음에 김차균의 (17)예들을 (19)에 의거하여 다시 설명한다⁸⁾. (20)이 보다 간결하면 서도 설명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 | | |
|-------------------------|--------|-------------|
| (20) ㄱ. 꽃밭 /kot \$ pat/ | -----> | [kop p'at] |
| alv. lab. (19ㄱ) | | lab. lab. |
| ㄴ. 단골 /dan \$ kol/ | -----> | [dag gol] |
| alv. dor. (19ㄴ) | | dor. dor. |
| ㄷ. 옆구리 /yep \$ kuri/ | -----> | [yøk k'uri] |
| lab. dor. (19ㄷ) | | dor. dor. |

못질 /mot \$ cil/은 (19)의 조건에 어긋나므로 위치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alv. al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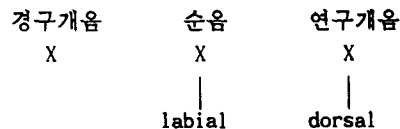
(12)음절두음의 강도강세의 조정을 받아 [motc'il]이란 올바른 표현형을 도출해 낸다.

| | | |
|--------------------|--------|------------|
| ㄷ. 못질 /mot \$ cil/ | -----> | [mot c'il] |
| 6 6 (13) | | 6 7 |

간장 /kan \$ caŋ/ 역시 (19)의 조건에 어긋나므로 위치동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alv. alv.

강도강세에 있어서 /kan \$ caŋ/은 (12)를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음운현상은 일어
 3 6

7) 잠재표기 이론을 빌리면 경구개음, 순음, 연구개음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 게 표기될 수 있다. 국어에서 경구개음은 가장 무표적인 음이다.



8) (17ㄷ)에서 '달력'의 예는 오정탄(1993ㄴ)을 참조할 것.

나지 않는 예이다.

ㅁ . 잇고 /it \$ ko/ -----> [ik k'o]
 alv. dor. (19L) dor. dor.

잇네 /it \$ ne/는 (19)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치동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강도
 alv. alv.

강세에서는 /it \$ ne/는 (12)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14)의 적용을 받게 된다.
 6 3

ㅂ . 잇네 /it \$ ne/ -----> [in ne]
 6 3 (14) 3 3

또한 뒤에서 후술하겠지만 강도조정 규칙과 위치조정 규칙은 하나의 결합형에 순차
 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꽃발 · 옆구리 · 잇고'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다.

4. 결론 - 강도 · 위치조정과 지배관계

지금까지 우리는 경음화 · 비음화의 근본 동인인 음절구조에 따른 '음절두음의 강도
 강세' 및 조음위치 동화의 근본동인인 '음절두음의 위치강세'를 살펴 보았다. 이들 강
 도강세와 위치강세의 공통성은 음절두음이 음절말음보다 강한 강세를 지닌다는 것이었
 다. 바꾸어 말하면 강도와 위치에 있어서 음절두음은 음절말음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음운현상에서 그 역의 방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지
 배관계가 중요한 버팀목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배관계의 표시는 Harris(1990)의 지배음운론(Government Phonology)의 도식을 빌
 리고자 한다. 다만 Harris가 제안한 분절음 내부의 원소들의 표시는 부자연스럽고 또
 개별 언어에 따라 많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⁹⁾. 오히려 국어 자

9) Harris는 분절음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을 제시하고 그 특성을 (1)과 같
 이 부여하였다. (2)는 그에 따른 원소들의 복합 모습이다. (Harris 1990:264)
 자세한 내용은 오정란 (1993:18장)을 참조바람.

(1)Harris의 원소들의 특성

| | | | |
|----|----------|----|-------------------|
| U* | labial | h* | noise |
| I* | palatal | N* | nasal |
| v* | none | H* | stiff vocal cords |
| R* | coronal | L* | slack vocal cords |
| ʔ* | occluded | | |

(2)여기서 밑줄친 것이 head원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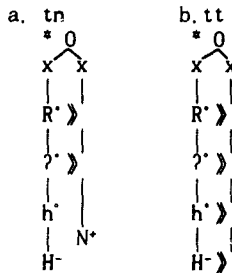
| | | | | |
|----|----|----|----|----|
| p | t | c | k | kp |
| x | x | x | x | x |
| | | | | |
| ʔ* | ʔ* | ʔ* | ʔ* | ʔ* |
| | | | | |
| U* | | | | U* |
| | R* | I* | | |
| | | | V* | |
| h* | h* | h* | h* | h* |

음사이의 음운현상에 나타나는 지배관계의 동인은 자음강도 및 조음위치의 우위성이 되어야 함을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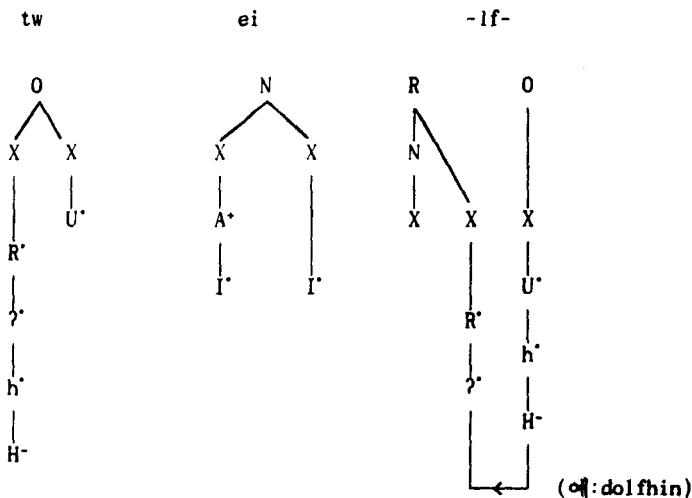
Harris는 내부 원소의 복잡도에서 보다 복잡한 분절음이 덜 복잡한 것을 지배한다고 하였는데¹⁰⁾, 이때 나타나는 자음들의 복잡도는 흥미롭게도 본고에서 채택한 자음의 강도 체계와 일치하고 있다. 물론 Harris 자신이 어디서도 자음 강도체계와의 일치성은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그가 자음의 강도를 염두에 두고 원소 규정과 부여를 하였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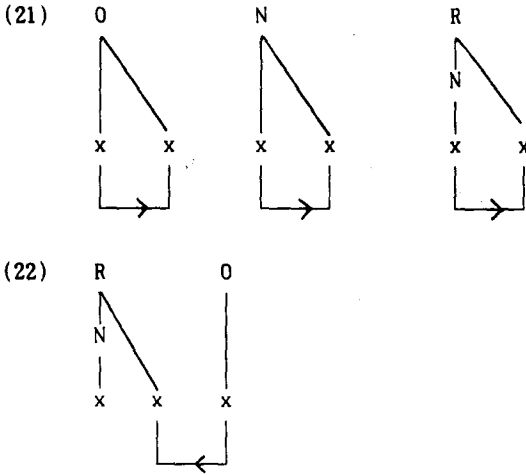
지배음운론은 세 종류의 성분만을 염두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밝히는데 있는데 이는 범어적이다. 즉, 음절두음(onset:O), 음절핵(nucleus:N), 운모(rhyme:R)이 그것이다. 화살표는 지배의 방향을 나타낸다¹¹⁾.

10) 이것을 Harris는 복잡도 조건(Complexity Condition)이라고 하였다. "A와 B 위치를 각기 점유하고 있는 분절음을 α 와 β 로 하라. 그러면 만약 A가 B를 지배한다면, β 는 α 보다 더 복잡해서는 안된다." 다음의 예들이 부적절한 이유는 바로 복잡도 조건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본다.



11) (21)과 (22)의 지배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의 예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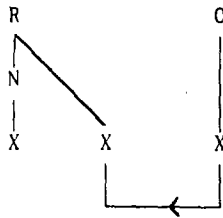




(21)은 음절두음에서의 지배관계, 음절핵에서의 지배관계, 운모에서의 지배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22)는 선행음절말음(coda)과 후행하는 음절두음과의 지배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22)를 음절말음되기(Coda Licensing)라고 하는데, 곧 음절두음이 선행음절말음을 지배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Harris의 분절음 내부의 원소 구성 및 복합은 인위적인 부자연스러움을 부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지배관계의 표시는 음운현상의 설명에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국어의 강도·위치 조정에서의 지배관계를 (22)를 빌어서 나타내면 (23)과 같다.

(23) 국어의 강도·위치 강세의 지배관계



∇ 음절두음의 강도 강세 : $C_f(s) \leq C_i(s)$

∟ 음절두음의 위치 강세 : $C_f(p) \leftarrow C_i(p)$

곧, 국어의 경음화·비음화·위치동화는 두 자음의 연속에서 각 자음의 음절내에서의 위치에 따른 지배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강도 조정과 위치 조정의 방향성은 범어적인 음절두음의 음절말음 지배라는 한 방향으로만 흐름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이 지배관계야말로 국어의 자음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강도 조정과 위치 조정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바, 아래에 예시화함으로서 결론에 대하고자 한다.

편의상 강도 조정과정은 1단계, 위치 조정과정은 2단계로 구분하여 본다.

(24) 1,2단계 모두 적용되는 경우

6 = 6 (13) 6 < 7
 옆구리 /yap \$ kuri/ -----> yap \$ k'uri -----> [yækk'uri]
 lab. dor. (19ㄷ)



6 = 6 (13) 6 < 7
 달고 /tat \$ ko/ -----> tat \$ k'o -----> [takk'o]
 alv. dor. (19ㄴ)



(25) 1단계만 적용되는 경우

6 > 3 (14) 3 = 3
 독눈 /tok \$ nun/ -----> tog \$ nun [tognun]
 dor. alv.



6 > 3 (14) 3 = 3
 국민 /kuk & min/ -----> kuŋ & min [kuŋmin]
 dor. lab.



(26) 2단계만 적용되는 경우

3 < 6
 감각 /kam \$ kak/ ---X---> kam \$ kak -----> [kanggak]
 (강도 만족) lab. dor. (19ㄷ)



3 < 6
 군불 /kun \$ pul/ ---X---> kun \$ pul -----> [kumpul]
 (강도 만족) alv. lab. (19ㄷ)



참고문헌

- 김기호 (1987) *The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Distinctive Feature: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ph.D dissertation, Univ. of Iowa.
 ---- (1990) “계층적 자질수형도에서의 비표기와 잠재표기”, 『언어』 15권 통합호, 한국언어학회.
 김차균 (1981) “음절이론과 국어의 음운규칙” 『인문과학 연구소 논문집』 제8권 1호 충남대학교.

- (1990) "국어 음운론에서의 강도의 기능", 『언어』 15권 통합호, 한국언어학회.
- 오정란 (1987) "국어 복합어 내부의 경음화 현상", 『언어』 12권 1호, 한국언어학회.
- (1988) 『경음의 국어사적 연구』, 한신문화사.
- (19937) 『현대 국어음운론』, 형설출판사.
- (1993L) "국어 'ㄹ' 음의 양음절성과 겹자음화", 『언어』 18권 1호, 한국언어학회.
- Clements, G.N. (1985) "The Geometry of Phonological Feature", *Phonology Yearbook* 2.
- Foley, J. (1970) "Phonological Distinctive Feature", *Folia Linguistica* 4.
- Grammont, M. (1933) *Traité de Phonétique*, Paris: Librairie Delagrave.
- Harris, J. (1990) "Segmental Complexity and Phonological Government" *Phonology* 7.
- Hooper, Joan B. (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Arcademic Press.
- Kaye, Jonathan Jean Lowenstamm & Jean-roger Vergnaud (1985) "The Interner Structure of Charm and Government", *Phonology Yearbook* 2.
- (1990) "Constituent Structure and Government in Phonology", *Phonology* 7.
- Kiparsky, P (1979) "Metrical Structure Assignment is Cyclic" *Linguistic Inquire* 10.
- Mohanan, K. P. (1983) "The Structure of Molody", ms., MIT, Cambridge, Massachusetts.
- Otero, C. P. (1971) *Evolución y Revolución en Romance*, Barcelona: Editorial Seix Barral.
- Vennemann, T. and Ladefoged, P. (1973) "Phonetic Features and Phonological Feature" *Lingua* 32.